

물건인가, 생명인가?: 사회적 가치와 생명윤리에 관한 의사결정

신 홍 임*

영남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가치와 생명윤리에 관한 의사결정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 1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의 사회적 가치를 조사하였다. 대학생들이 성취의 가치를 선호할수록 배려의 가치를 선호하는 정도가 낮아서, 성취의 가치가 배려의 가치와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연구 2에서는 문장완성과제를 통해 성취/배려의 가치를 활성화시킨 조건에 따라 생명윤리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성취/배려의 점화에 관계없이 동물실험, 안락사 및 장기이식의 활성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공리주의적 결정이 나타났다. 이에 비해 태아성감별과 인간복제연구에 관해서는 성취조건과 배려조건에서 모두 동의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구 3에서는 성취/배려의 가치를 활성화시킨 조건에서 단어완성과제를 통해 참가자들의 암목적 가치 선호를 측정한 후, 생명윤리에 대한 의사결정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배려점화조건에서 배려의 가치를 암묵적으로 더 선호하는 참가자일수록 동물실험 및 장기이식의 활성화에 더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태아 성감별과 인간복제연구에 대한 의사결정에서는 조건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서, 실험상황에서 유도된 사회적 가치와 참가자 개인이 암묵적으로 선호하는 가치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한 개인이 암묵적으로 선호하는 사회적 가치와 외부상황에서 부각되는 가치가 생명윤리에 관한 의사결정에 차별화된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논의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윤리적 의사결정의 관계를 토론하고,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방향을 다루었다.

주제어 : 사회적 가치, 생명윤리, 점화, 암목적 태도, 공리주의적 의사결정

* 본 연구는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NRF-2015S1A5A8011028).
논문에 대해 자세한 도움말을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 신홍임,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종합강의동 418호 (우편번호: 38541)

Tel : 053-810-7831, E-mail : shin7038@naver.com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간 가습기 살균제사건은 2011년 4월 임신부 폐손상 신고가 감추어진 이후 5년이 지난 2016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보도되었다¹⁾. 이 사건은 기업에 생명을 최소한이라도 고려하는 윤리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한국 사회에 안전과 생명이 중심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사건이다(2016년 9월 6일 경향신문). 또한 2016년 9월 시위 진압 도중 발생한 농민의 사망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기준에 의한 사인 판정은 ‘외인 사로, 서울대병원에서는 ‘병사로 각각 차이가 난 것은 가치중립적이어야 할 사망진단서에 나타난, 윤리적 입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2016년 10월 1일 한겨레신문).

생명윤리는 언뜻 보면 철학, 윤리학이나 종교에서만 논의되는 주제인 것으로 보이지만(김기홍, 2003; 문성학, 정창록, 2010; 추정완, 2015), 일상에서 신문기사나 보도를 통해서도 자주 접하게 된다(이재성, 2011).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장기를 부모의 결정으로 기증하는 것은 정당한가? 인간을 뇌사의 시점에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이러한 질문은 인간과 동물이 모두 고통을 느끼는 존재임을 감안할 때, 동물의 생명에 대한 주제까지 확장될 수 있다(목광수, 2010). 예를 들어, ‘산책길에서 자신을 공격한 개에 대한 폭력을 어느 정도까지 정당

방어로서 인정할 것인가?’, ‘동물실험을 하는 화장품을 계속해서 구입할 것인가?’, ‘이웃의 골목길에 버려진 반려동물의 안락사를 앞으로 계속 허용할 것인가?’²⁾ 등은 생명윤리의 원칙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도 일상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이다. 이와 더불어 생명윤리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한 의사결정은 현재의 삶과 연관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극단의 의견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다(Greene, 2016). ‘인간을 대체하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허용할 것인가?’, ‘인공지능은 돌발 상황에서 차 소유주의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인가?’, ‘인간복제연구를 난치병치료를 위해서만 허용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는 생명윤리의 추상적 원칙만으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심리적 불안감이 존재한다(구인회, 2005).

따라서 이제부터는 생명윤리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생명윤리에 대한 의사결정이 개인적 변인과 상황적 변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한국 사회에서 발생할 윤리적 갈등상황을 예측하고 조정하기 위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교현(2002)도 생명윤리의 추상적 논리만 내세우지 말고, 생명공학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과학기술 만능주의나 반과학기술주의와 같은 찬성/반대의 양극단 대립을 줄이고,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의 선행연구(김기홍, 2003; 목광수,

1)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람들은 2016년부터 지난 5년간 4천 명을 넘어섰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지난 8월31일 기준 4486명(사망자 919명 포함)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9월부터 정부에 신고된 규모다(2016년 9월 8일 한겨레신문).

2) 한국에서는 한 해 8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유기되고, 버려진 반려동물의 80% 이상이 안락사되고 있다. 유기동물 입양과 안락사 등으로만 한 해 100억원 이상이 든다(2016년 5월 16일 서울신문).

2010; 문성학, 정창록, 2010)에서는 생명윤리의 의사결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에 대해 철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개인적 변인과 사회적 변인이 생명윤리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두 가지 주된 입장인 공리주의와 의무론의 결정을 토대로 외부상황에서 특정한 가치가 활성화될 때, 한 개인이 선호하는 사회적 가치가 생명윤리의 주제에 관한 옳고 그름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탐색해보려 한다.

생명윤리에 대한 의사결정과 사회적 가치

지금까지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Conway & Gawronski, 2013; Greene, 2009; Greene, Morelli, Lowenberg, Nystrom, & Cohen, 2008; Greene, Sommerville, Nystrom, Darley, & Cohen, 2001; Haidt, 2009)에서는 공리주의적 입장과 의무론적 관점을 서로 비교하면서 의사결정의 차이를 분석해왔다. Greene 등(2001)에 의하면, 공리주의는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이득을 도출하는 행동을 더 옳은 행동으로 판단하며(예: 다섯 명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옳다,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간배아³⁾를 활용하는 것은 옳다), 결과를 과정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시킨다. 이에 비해 의무론은 최

대한의 이득을 가져오는 행동이라도 주체의 의도가 선하지 않으면 옳지 않은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예: 한 명의 생명이라도 무고한 인간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빼앗을 수 없다, 인간배아도 인간이 되는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인간배아를 희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리주의는 차가운 이성에 의한 의사결정이며, 의무론은 뜨거운 정서가 주도하는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다(Greene, 2009). 선행연구(김기홍, 2003; 목광수, 2010; 박미화, 2000)에 의하면,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모든 생명의 가치가 그것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예: 건강한 성인은 식물인간에 비해 더 가치가 있다, 인간배이는 인간에 비해 가치가 떨어진다), 안락사, 조력자살, 낙태, 동물실험⁴⁾ 및 장기이식 및 공급의 활성화에 대해 동의한다. 이에 비해 의무론에 의하면, 모든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고,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다른 인간으로부터 존중받을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락사, 말기환자의 생명연장조치 중단, 낙태 및 동물실험에 대해 반대한다.

그런데, 한 개인은 생명윤리의 모든 영역에 대해 공리주의적 관점 또는 의무론적 관점을 일관적으로 갖고 있다기보다는 생명윤리의 다양한 영역에 따라 각각 다른 관점을 취하게

3)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되는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한 시점부터 8주까지를 '배아'라고 지칭한다. 그러나 인간배아복제에서 논란이 되는 중요한 문제는 수정란이 된 직후부터 착상되기 전의 시기의 배아를 '세포덩어리'로 보아야 할지, 또는 인격을 갖춘 인간이 되는 연장선상에 있는 인간 생명으로 존중해야 할지에 대한 것이다(문성학, 정창록, 2010).

4) 목광수(2010)는 동물실험에 관한 공리주의적 입장을 설명하면서, 공리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동물복지론에서는 인간의 이익이 동물의 고통보다 커서, 더 많은 효용을 산출할 수 있다면, 동물실험을 허용하며, 동일한 근거에서 가장자리 인간(marginal human being) 실험(예: 뇌가 손상된 인간, 심각한 장애가 있는 아이)도 허용한다고 기술했다.

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박미화(200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낙태를 반대하는 의무론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안락사와 생명연장조치의 제거에 대한 동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공리주의적 결정이 더 우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국내의 다른 연구(성미혜, 1999; 한성숙, 안성희, 1995)와도 유사하였다. 따라서 한 개인은 생명윤리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공리주의와 의무론의 갈등을 겪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김교현(2002)의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전반적으로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으로는 생명연장과 불치병 치료라는 긍정적인 관점이 발견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생명공학기술의 과도한 발달로 인해 인간존엄성 경시나 상업적 악용과 같은 걱정과 우려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생명공학기술의 영역에서는 공리주의적 입장과 의무론적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 이 영역에서도 생명윤리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추정완, 2015; Engelen & Vandeveld, 2004; Heyd, 2003)에서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태아성감별 및 낙태에 관해서도 동의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발견된다. 여기에서도 태아성감별의 과학기술이 결과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별에 대해 더 만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동의한다는 공리주의적 입장과 부모가 자녀의 성별선택을 위해 의도적으로 낙태를 행하여,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무론적 입장의 대립이 있다.

이와 더불어 장기이식에 관한 의사결정에서도 공리주의와 의무론의 갈등이 나타난다. 국

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장기이식의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은 감소하고 있어서,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불법적인 장기매매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한성숙, 김중호, 홍현자, 2003). 따라서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과 제도를 통해 환자 보호자의 경제적, 심리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장기 수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장기기증을 활성화하여 장기공급을 늘리자는 공리주의적 입장과 죽음을 너사의 의학적 접근으로 파악하고, 장기를 적출한다는 것이 인간을 존재로서가 아니라 도구로서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공급의 활성화를 반대하는 의무론적 입장을 생각해볼 수 있다(이재성, 2011).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생명윤리의 다양한 영역에서 공리주의/의무론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공리주의적/의무론적 입장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 생명윤리의 여섯 가지 영역(동물실험, 안락사, 과학기술, 장기이식, 태아성감별, 인간복제연구)을 중심으로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위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생명윤리의 의사결정에는 공리주의와 의무론의 대립이 존재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피해자가 부각되는 방식(Waldmann & Dieterich, 2007), 정치성향(Haidt, 2007)과 상황에 대한 개입정도(Conway & Gawronski, 2013; Greene, 2009)에 따라 이러한 의사결정의 차이가 발생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지 않은 사회적 가치와 윤리적 의사결정의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생명윤리에 관한 논쟁은 가치중립적 상태에서 일어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Morales, 2009). 선행연구(Schwartz, 1992; 1996)에 의하면

가치는 한 개인의 신념이며, 특정한 행동을 동기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개인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의 중요도와 긍정성에 따라 상대적인 위계체제가 존재한다. Schwartz(1992)는 사회적 가치의 원형모형(circular model of social values)을 제안하여, 다양한 가치를 열 가지 유형(예: 권력, 성취, 배려)으로 분류하고, 비슷한 가치일수록(예: 권력, 성취) 서로 인접해있으며, 상반되는 가치의 경우(예: 성취 - 배려) 가장 멀리 떨어져 위치해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또한 이 모형에서는 특정한 가치의 활성화가 이와 연관된 행동을 동기화시키고, 상반되는 가치와 연관된 행동의 동기화를 억제할 것을 예측하였다. Maio, Pakizah, Cheung과 Rees(2009)는 일련의 실험을 통해 Schwartz의 이론을 검증했다. 연구자들이 단어분류과제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성취의 가치를 활성화시키면, 퍼즐과제의 수행도가 증가했지만, 성취와 상반되는, 배려의 가치와 연관된 도움행동은 통제조건에 비해 감소되었다. 반면 배려의 가치를 활성화시키면 배려의 가치와 연관된 도움행동은 증가되었고, 성취의 가치와 연관된 퍼즐과제의 수행도는 감소되었다. 이 결과는 특정한 가치가 활성화되면 연관된 행동은 증가되었고, 상반되는 가치와 연관된 행동은 감소된다는, Schwartz의 이론이 타당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외부환경을 통해 가치 및 이와 연관된 행동의 변화가 유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Schwartz(1992; 1996)의 이론과 선행연구의 결과(Maio et al., 2009)를 토대로 생각해볼 때, 생명윤리에 대한 개인의 의사결정도 개인이 선호하는 가치 및 사회적으로 지향되는 가치와 상관관계에 있을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chwartz가 제안한 열 가지 유

형의 사회적 가치 중에서 성취/배려의 가치를 중심으로 생명윤리 의사결정과의 관계를 비교하고자 한다. Schwartz(1992; 1996)에 의하면, 성취의 가치는 능력, 성과, 성공 및 영향력으로 정의되는데, 이것은 공리주의가 강조하는 효율성 및 결과의 최적화와 연관될 수 있다. 반면, 배려의 가치는 타인의 행복에 대한 자발적 관심, 도움과 책임으로 정의되는데, 이것은 타인에 대한 선한 의도와 과정을 강조하는 의무론적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 개인이 선호하는 가치에 따라 생명윤리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최대 이득과 결과(공리주의) 또는 선한 의도와 과정(의무론)이 부각되는 정도가 달라질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특정한 가치와 생명윤리 의사결정과의 관계는 현재의 의사결정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와 개인이 선호하는 가치의 변화에 따라 생명윤리에 관한 의사결정도 변화될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들이 현재 중요시하는 가치에 대해 조사하고, 사회적 가치와 생명윤리에 관한 의사결정의 관계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실험상황으로부터 유도된 성취/배려 가치의 활성화가 생명윤리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생명윤리와 암묵적 측정

지금까지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선행연구(Conway & Gawronski, 2013; Greene, 2009; Greene et al., 2008; Greene et al., 2001; Haidt, 2009)에서는 대체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참가자의 의식적인 반응을 측정했다. 예를 들어, Haidt(2007)는 질문지를 통해 옳고 그름의 판단에서 개인차를 진보성향과 보수성향으

로 구분하여 윤리적 의사결정의 판단기준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측정했다. 그 결과, 대체로 진보성향의 사람들은 위해(harm)와 공정성(fairness)을 다른 기준에 비해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비해, 보수성향의 사람들은 위해와 공정뿐만 아니라 내집단(ingroup), 권위(authority) 및 순수성(purity)을 도덕 판단에서 모두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참가자가 자신의 반응을 의식하는 것은 연구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Hofmann 등(2014)은 종교여부가 사회적인 긍정적 인상추구경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종교를 믿는 참가자가 비도덕적 행동을 했음에도 자기보고식 질문지에서 자신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 보고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따라서 참가자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암묵적 태도의 측정은 윤리적 행동과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는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Fitzgerald(2014)는 의사들이 여성에 대해 암묵적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을 때, 환자면담에서 여성에 대해 더 자주 비정상적 진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Bardi와 Schwartz(2003)는 한 개인이 선호하는 가치는 무의식적 경로를 통해서 개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연구(Feinberg & Willer, 2013; Conway & Gawronski, 2013; Greene, 2009; Haidt, 2009; Waldmann & Dieterich, 2007)에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와 같은 명시적 측정방법을 사용하고, 참가자의 무의식적인 반응을 측정하는, 암묵적 검사도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가 무의식적으로 선호하는 가치를 측정하는데, 암묵적 측정방법을 활용하여 참가자의 가치와 윤리적 의사결정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암묵적 태도의 측정은 참가자가 자신의 반응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미지를 고려해야 하는 참가자의 반응을 측정해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암묵적 태도의 측정은 암묵적 연합 검사(이현지, 방희정, 2012; Fitzgerald, 2014; 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 Monteith, Lybarger & Woodcock, 2009)를 통해 수행되었다. 이 검사에서는 대상과 연합되는 긍정적 속성단어(예: 평화, 사랑) 또는 부정적 속성단어(예: 질병, 전쟁)를 제시하여 일치시행(대상 + 부정적 단어)과 불일치시행(대상 + 긍정적 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의 차이를 산출하여 대상에 대한 암묵적 편견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생명윤리와 부정단어가 연합되는 일치시행의 평균반응시간이 생명윤리와 긍정단어가 연합되는 불일치시행의 평균반응시간보다 더 짧을 경우 생명윤리에 대한 암묵적 부정적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완성과제(Bardi, Calogero, & Mulle, 2008; Johnson & Lord, 2010; Vargas, Sekaquaptewa, & von Hippel, 2007)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에 대한 참가자의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이 과제에서는 참가자가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선호한다면 동일한 단어조각에 대해서 자신이 선호하는 가치와 연관된 단어들에 연관되지 않은 중립적 단어들보다 더 많이 떠올릴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단어조각('_OWER')을 제시했을 때, 참가자에게 성취의 가치가 활성화된다면, 단어조각을 'POWER'의 단어로 완성할 것이다. 반면 성취의 가치가 참가자에게 중요하지 않다면, 이 단어조각을 성취의 가치와 연관되지 않는 'LOWER'의 단어로 완성시킬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성취의 가치와 연관된 단어들 많이 활성화되는 참가자와 성취의 가치가 연관되지 않는 단어들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성화되는 참가자들 간에 의사결정의 차이가 나타난다면 성취의 암묵적 가치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성취의 가치 또는 배려의 가치가 외부환경으로부터 간접적으로 활성화될 때, 한 개인이 선호하는 가치에 따라 생명윤리에 대한 의사결정이 달라지는지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연구 1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가치를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Schwartz(1992)가 제시한 것처럼 성취의 가치가 배려의 가치와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2에서는 문장완성과제를 통해 성취/배려의 가치를 활성화시켰을 때, 생명윤리에 관한 의사결정이 달라지는지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3에서는 단어완성과제를 통해 참가자에게 단어 조각을 제시하여 참가자의 마음속에 내재된 암묵적 가치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가자들에게 문장완성과제를 통해 '성취' 또는 '배려'의 단어를 제시한 후, 이와 연관된 의미가 참가자의 마음속에 활성화되었을 때, 동물 실험, 과학기술 발달, 안락사, 인간복제연구 및 태아 성감별에 관한 참가자의 선택이 자신이 선호하는 가치와 외부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가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일련의 연구를 통해 생명윤리의 주제에 관한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에 성취/배려의 가치가 끼치는 영향을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 1

연구 1의 목적은 한국 대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조사하는데 있다. 또한 연구 2와 연구 3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될 성취의 가치와 배려의 가치가 Schwartz(1992)가 제안한 것처럼 상반된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방 법

참가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의 대학생 205명(남자 119명, 여자 86명, 평균연령 만 21.62세, 표준편차: 2.65)이 심리학 교양수업을 수강하면서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의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n = 102)과 의학계열(n = 103)로 구분되었다. 연구 참가에는 총 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았다.

연구도구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Schwartz(1992)가 개발한 가치에 대한 설문지를 참조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열 개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설명(예: 성취는 사회적 기준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개인적인 성공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가자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일상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들을 중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응답하였다. 예를 들어 참가자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는 '1'을 기입하고, 중요성이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 가치에는 '10'으로 응답했다. 본 연구에서는 Maio 등(2009)을 토대로 1-4점을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가치로, 8-10점을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가치로 해석하였다.

성취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가치에서는 두 참가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가치 간의 상관관계

결 과

사회적 가치의 중요도

표 1과 같이 대학생들이 현재 자신의 삶에서 중요성이 높다고 생각한 가치들은 성취, 자율성, 배려였고, 비교적 중요성이 낮다고 생각한 가치들에는 전통, 권력, 자극이었다. 사회적 가치의 상위역역별로 보았을 때, 자기초월영역이 가장 중요성이 높은 영역으로 나타났고, 보존영역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공계열별로 사회적 가치의 중요도를 평정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본 결과, 성취의 가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203) = 2.02, p < .05$. 의학계열의 참가자들은 인문사회계열의 참가자들보다

열 가지 사회적 가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서로 상반되거나 멀리 떨어진 영역에 속한 가치들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기향상 영역에 속하는 성취의 가치와 자기초월의 영역에 속하는 배려의 가치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 = -.23, p < .01$. 성취의 가치와 자기초월의 영역에 속하는 공존의 가치 간에도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 = -.24, p < .01$. 또한 성취의 가치와 보존의 영역에 속하는 전통의 가치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 = -.12, p < .05$. 반면, 인접한 영역에 속하는 가치들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기초월 영역에 속하는 공존의 가치와 배려의 가치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 = .44, p < .01$. 또한 보존의 영역

표 1. 대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순위점수(평균) (N = 205)

가치 상위영역	보존		자기향상			개방		자기초월		
사회적 가치	안전	전통	규범	성취	권력	자극	쾌락	자율성	배려	공존
인문사회 (n = 102)	4.29 (2.41)	8.52 (1.84)	5.85 (2.23)	4.06 (2.20)	7.48 (2.38)	7.05 (2.41)	6.53 (2.40)	3.18 (2.28)	3.50 (2.13)	4.49 (2.48)
의학 (n = 103)	4.68 (2.33)	8.48 (1.75)	6.27 (2.40)	3.43 (2.24)	7.50 (2.41)	6.87 (2.53)	6.15 (2.68)	3.54 (2.01)	4.01 (2.59)	4.15 (2.26)
총합	4.48 (.16)	8.50 (1.79)	6.06 (2.32)	3.74 (2.23)	7.49 (2.39)	6.96 (2.46)	6.34 (2.55)	3.36 (2.15)	3.75 (2.38)	4.31 (2.37)

주.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표 2. 사회적 가치 간의 상관관계 (N = 205)

	1	2	3	4	5	6	7	8	9
1. 안전									
2. 전통	.18**								
3. 규범	.10	.23**							
4. 성취	-.21**	-.12**	.01						
5. 권력	-.17**	-.19**	-.38**	.01					
6. 자극	-.40**	-.30**	-.41**	-.02	.06				
7. 쾌락	-.19**	-.36**	-.40**	-.07	.16**	.49**			
8. 자율성	-.17*	-.16*	-.32**	-.15*	-.11	.07	-.01		
9. 배려	-.01	.04	.09	-.23**	-.43**	-.36**	-.43**	-.08	
10. 공존	-.09	-.07	.05	-.25**	-.34**	-.29**	-.38**	-.07	.45**

* $p < .05$, ** $p < .01$

에 속하는 전통의 가치와 규범의 가치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 = .23$, $p < .01$.

논 의

연구 1에서는 Schwartz(1992)의 사회적 가치의 원형모형에서 제시된 것처럼 성취의 가치와 배려의 가치가 부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 나타났다. 이것은 성취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생들은 배려와 공존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일상적으로 배려와 공존에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는 대학생들은 성취를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의학교육의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보다 성취지향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다른 전공영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참가자의 개인성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교육과정의 차이로 인한 환경적 영향

으로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의학교육의 교육과정에서는 잦은 시험과 경쟁적 학업으로 인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인문사회계열의 학생들보다 성취의 가치가 더 부각될 수 있다(견영기 등, 2010; Enns, Cox, Sareen, & Freeman, 2001). 따라서 한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에는 개인적 신념과 선호이외에도 외부 상황의 변인이 영향을 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연구 1에서는 성취의 가치가 배려의 가치가 상반된 관계에 있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 2와 연구 3에서는 이러한 가치가 생명윤리의 의사결정에서 공리주의적 의사결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해보려 한다.

연구 2

연구 2의 목적은 사회적 가치의 무의식적인 활성화가 생명윤리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성취

또는 배려의 가치가 활성화된 조건에 따라 동물실험, 과학기술 발달, 안락사, 장기이식, 태아 성감별 및 인간복제연구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였다.

방 법

참가자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4년제 대학교의 대학생 120명(남자 73명, 여자 47명, 평균 연령 만 21.72세, 표준편차: 2.31)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연구참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았다. 연구 2에는 약 십 분이 소요되었다.

연구도구 및 절차

본 연구에서 성취 또는 배려의 가치를 활성화시킨 조건에서 생명윤리에 관한 의사결정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참가자들에게 문장완성과제를 통해 성취 또는 배려의 가치를 무의식적으로 활성화시켰다. 문장완성과제(Srull & Wyer, 1979; Fitzsimons & Shah, 2008)에서는 참가자에게 여러 개의 뒤섞인 단어를 제시했을 때, 문장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단어(예: 경쟁, 능력)와 연관된 표적단어(예: 성취)가 무의식적으로 연상되는 원리를 활용한 다⁵⁾.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총 열 개의 문

장을 완성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각 문장에는 다섯 개의 단어들(예: 김밥, 하늘, 바라보다, 먹다, 경쟁)이 주어졌고, 여기에는 성취의 가치와 연관된 단어(예: 성공, 능력)가 한 개씩 포함되었다. 배려의 가치조건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문장완성과제가 실시되었으며, 배려와 연관된 단어들(예: 도움, 용서)이 제시되었다. 성취/배려의 조건에서는 각각 성취/배려의 가치와 연관된 단어들(예: 성공, 능력)이 한 개씩 포함된 단어 세트를 사용하였으며, 총 열 개의 세트를 사용하였다. 성취/배려의 가치와 연관된 단어들은 Bardi와 Schwartz(2003)를 토대로 선정하였다. 그 외 다른 단어들은 모두 같은 단어들(예: 문장완성과제에 제시되었으며, 성취/배려의 가치와 연관된 단어들)을 포함하여 총 오십 개의 단어가 사용되었다. 문장완성과제가 끝나면, 박미화(2000)의 연구에서 수정한 생명윤리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이 질문지는 생명윤리에 관한 열다섯 개의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자신이 동의하는 정도를 7점 척도에 따라 평정하였다. 이 문항들은 동물실험(예: 의료기술의 발달을 위해 동물실험은 필요하다), 안락사(예: 치료불가능한 질병의 경우, 환자의 안락사를 허가해주어야 한다), 과학기술(예: 과학기술의 발달은 사회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장기이식(예: 장기이식을 위한 신체 장기가 공급부족이기 때문에, 장기기증을 통해 공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태아 성감별(예: 장차 태어날 아기의 성별을 선택하는 것을 허가해야 한다) 및 인간복제연구(예: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독려해야 한다)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 중 과학기술에 대한 문항은 역채점문항으로, 점수를 변환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과학기술 발달(다)를 제시하여 사회적 동기의 의미를 점화했다.

5) 예를 들어, Hart와 Albarracin(2009)에서는 참가자의 성취동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개의 단어들(예: 도서관, 노력)을 제시하여, 성취와 연관된 일련의 질문을 완성하도록 했다. Fitzsimons과 Shah(2008)는 다양한 단어(예: 파티, 친구를 사귀

표 3. 사회적 가치의 점화조건과 생명윤리주제에 대한 의사결정에서의 동의정도 (N = 120)

점화조건	동물실험	과학기술 발달	태아 성감별	안락사	장기이식	인간복제 연구
성취의 가치 (n = 62)	4.39 (1.57)	4.65 (1.66)	2.60 (1.64)	4.53 (1.67)	4.89 (1.50)	2.90 (1.78)
배려의 가치 (n = 58)	4.36 (1.39)	4.52 (1.80)	2.36 (1.44)	4.28 (1.76)	5.14 (1.17)	2.47 (1.59)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에 대한 찬성의견에 해당한다. 선행연구에 따라 동물실험(목광수, 2010), 과학기술발달(김기홍, 2003), 태아성감별(Engelen & Vandeveld, 2004; Heyd, 2003; 추정완, 2015), 안락사(박미화, 2000), 장기이식(구인회, 2000; 이재성, 2011), 인간복제연구(문성학, 정창록, 2010)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을수록 공리주의적 결정의 비율이 더 커진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질문지의 내적 합치도는 .68로 나타났다. 질문지가 끝나면,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를 종료하였다.

결 과

성취/배려점화조건과 공리주의적 의사결정

연구 2에서는 문장완성과제를 통해 성취 또는 배려의 가치를 점화시킨 후에 생명윤리에 관한 의사결정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점화조건 간의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동물실험: $t(118) = .09, p = .96$, 과학기술발달: $t(118) = -.40, p = .68$, 태아성감별: $t(118) = .83, p = .41$, 안락사: $t(118) = .82, p = .41$, 장기이식: $t(118)$

$= -.76, p = .44$, 인간복제연구: $t(118) = 1.41, p = .13$). 따라서 실험상황에서 문장완성과제를 통한 성취/배려의 가치점화는 생명윤리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생명윤리영역의 공리주의/의무론 결정

생명윤리의 세부영역에 따라 참가자의 동의정도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단일표본 t검증을 수행했다. 그 결과, 동물실험에 대해 참가자의 동의정도가 7점 척도에서 보통(4)보다 높게 나타났다, $t(119) = 2.82, p < .05$. 또한 안락사와 장기이식에 관해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경향이 '보통(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락사: $t(119) = 2.65, p < .01$, 장기이식: $t(119) = 8.21, p < .001$). 반면, 과학기술발달에 관해서는 동의정도가 보통(4)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과학기술발달: $t(119) = 3.75, p < .001$. 따라서 이 결과는 동물실험, 안락사, 장기이식과 과학기술 발달에 관해 참가자들이 전반적으로 공리주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태아성감별에 관해서는 성취조건과 배려조건에서 모두 보통보다 동의정도가 낮아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119) = -10.77, p < .001$. 또한

인간복제연구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통보다 동의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나서, 이 두 조건에서 모두 인간복제연구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t(119) = -8.41, p < .001$. 따라서 태아성감별 및 인간복제 연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의무론적 결정이 더 우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논 의

연구 2에서는 성취 또는 배려의 가치를 활성화시켰을 때,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성취 또는 배려의 가치점화에 따라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의 차이는 전반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험상황에서 유도된 가치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 2에서 문장완성과제를 통한 가치의 점화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선행연구(Fitzsimons & Shah, 2008)에서 대체로 열다섯 개 이상의 단어세트를 사용한 것과 비교해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열 개의 세트가 점화효과를 유도하는데 부족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윤리적 의사결정의 세부영역에 따라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동물실험, 안락사, 장기이식 및 과학기술에 대해 연구 참가자들의 동의정도가 전반적으로 보통수준보다 높았다. 반면, 태아성감별에 관해서는 반대하는 정도가 보통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인간복제연구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정도가 보통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공리주의적 결정과 의무론적 결정이 동물실험, 안락사, 장기이식 및 과학기술

에 대해 공리주의적 결정이 우세한 반면, 태아성감별 및 인간복제연구에 대해 의무론적 결정이 더 많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박미화, 2000; 한성숙, 안성희, 1995)와 같이 참가자가 일관적으로 공리주의 결정만을 선호한다기보다는 생명윤리의 세부영역에 따라 공리주의/의무론의 대립을 경험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연구 2의 결과해석에 있어서 세 가지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참가자가 선호하는 사회적 가치를 사전에 분석하지 않아서, 성취/배려조건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했던 점이다. 둘째, 문장완성과제를 통해 점화한 성취/배려의 조건에서 성취/배려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활성화된 정도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던 점이다. 셋째,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해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측정했기 때문에 참가자의 내재적인 태도를 동시에 고려할 수 없었던 점이다. 이에 따라 연구 3에서는 이 한계점을 보완하여, 사회적 가치의 활성화와 생명윤리에 대한 의사결정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3

연구 3의 목적은 외부 상황에서 성취/배려의 가치를 무의식적으로 활성화시켰을 때, 참가자가 암묵적으로 선호하는 성취/배려의 가치가 생명윤리에 대한 공리주의적 결정에 차별화된 영향을 끼치는지를 검증하는데 있다.

방 법

참가자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4년제 대학교의 대학생 59명(남자 38명, 여자 21명, 평균연령 만 20.73세, 표준편차: 2.69)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연구참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았다. 연구 3에는 약 십 분이 소요되었다.

연구도구 및 절차

연구 3은 집단으로 실시되었다. 참가자들에게는 연구의 목적을 외국어능력과 의사결정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연구는 단어완성과제를 통해 참가자들이 선호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 과제에서는 부록 1과 같이 참가자가 단어조각을 보고, 마음속에 떠오른 단어를 가능한 신속하게 완성하도록 하였으며,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다음 문항으로 이동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예를 들어 참가자에게 ‘-cess’의 철자가 제시되었을 때, 참가자가 ‘success’로 단어를 완성한다면, 성취의 가치와 연관된 목표단어로서 1점을 받게 된다. 이에 비해 참가자가 ‘process’로 단어조각을 완성했다면, 중립단어로서 -1점을 받게 된다. 또한 참가자가 단어조각을 완성하지 못했다면, ‘0’점으로 기록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Bardi, Calogero, & Mulle, 2008; Johnson & Lord, 2010; Vargas, Sekaquaptewa, & von Hippel, 2007)를 토대로 총 24개의 영어단어조각을 선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성취/배려의 가치와 연관된 단어조각을 각 다섯 개씩 사용하였다. 단어조각은 영어를 사용하였으며, 목표단어와 중립 단어를 단어빈도에서 통제하였다. 단어완성과제를 통해 암묵적 가치를 측정할 선행연구

(Bardi, Calogero, & Mulle, 2008; Johnson & Lord, 2010)에서는 단어완성과제에서 10%-85%의 범위에서 목표단어 또는 중립단어를 완성한 참가자들의 자료만을 추후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 59명 모두 16%-79%(M = 46.3%)의 단어조각을 목표단어 또는 중립단어로 완성하였기 때문에, 단어완성과제를 수행한 참가자들의 자료를 모두 추후 분석에 포함시켰다. 단어완성과제가 종료되면, 참가자들은 영어습득연령과 영어유창성에 대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응답했다⁶⁾. 이후 참가자들은 자신의 가치 선호에 대해 자기보고식 질문에 응답했다. 참가자의 명시적 가치 선호검사는 연구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명시적/암묵적 검사의 순서로 인한 오류를 줄이

6) 연구 3에서는 영어단어조각을 암묵적 가치를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영어유창성이 성취 또는 배려의 가치와 연관된 영어단어가 활성화되는 것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참가자의 영어유창성을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측정했다. 연구 3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평균 9.08세(SD=2.35)에 영어를 학습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에게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영어유창성을 9점 척도에서 응답하도록 하였을 때, 전반적인 영어유창성은 평균 4.14(SD=1.64)로 나타났다(독해, M=4.39, SD=2.02; 청취, M=4.69, SD=2.11; 회화, M=3.64, SD=2.01; 작문, M=3.85, SD=2.91). 성취의 가치조건(M=4.12, SD=1.45)과 배려의 가치조건(M=3.83, SD=1.76)에 배정된 학생들의 영어유창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57) = -1.124, p = .12$. 성취조건(M=11.21, SD=3.48)과 배려조건(M=11.08, SD=3.40)에서 참가자들이 단어완성과제에서 응답한 총 단어의 개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57) = .139, p = .87$. 또한 영어유창성과 성취($r = -.21, p = .112$) 또는 배려의 암묵적 가치($r = -.017, p = .900$)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 위해, 참가자의 절반은 암묵적 가치검사를 먼저 수행하고, 남은 절반은 명시적 검사를 먼저 수행하여, 검사순서를 역균형화했다. 이 과제가 종료되면, 참가자들은 자신의 일상적인 성취지향에 대한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이 질문지에는 참가자가 자신이 일상에서 성취를 추구하는 정도를 5점 척도에서 평정하였다. 성취지향성의 질문지에는 Hart와 Albarracin (2009)을 토대로 총 7개의 문항(예: 나는 최선을 다하여 일할 때, 가장 만족감을 느낀다, 나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보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다)이 사용되었다. 성취지향 정도는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2였다. 사회적 가치의 검사가 종료되면, 성취의 가치조건($n = 32$) 또는 배려의 가치조건($n = 27$)에 무선적으로 배정되었다. 연구 3에서도 성취/배려의 가치를 점화하기 위해 문장완성과제를 실시했다. 문장완성과제는 연구 2에 사용한 단어세트보다 각 조건에서 세 개의 세트를 더 추가하여, 총 열 여섯 개의 단어세트를 사용하였다. 문장완성과제의 절차는 연구 2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생명윤리 주제에 대한 설문문항에 자신이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하였다. 이 문항들은 연구 2와 동일하였으며, 연구 3에서 생명윤리 질문지의 내적합치도는 .73으로 나타났다.

결 과

조작점검

참가자의 일상적인 성취지향성을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하여 비교했을 때, 성취조건과

배려조건에서는 성취지향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57) = .110, p = .91$. 따라서 성취/배려의 조건에서 생명윤리의 주제에 대한 의사결정의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 결과는 참가자 개인이 의식하는 자신의 일상적인 성취지향성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명시적 가치의 활성화와 생명윤리에 대한 공리주의적 의사결정

성취/배려에 대한 참가자의 명시적 가치 선호가 생명윤리의 의사결정에서 공리주의적 결정과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성취의 명시적 가치는 생명윤리에 대한 공리주의적 결정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배려의 명시적 가치는 과학기술발달에 대한 동의도와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r = .28, p < .05$. 이 결과는 참가자가 배려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배려의 순위점수가 낮을수록)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암묵적 가치의 활성화와 생명윤리에 대한 공리주의적 의사결정

단어완성과제를 통해 측정한 성취/배려에 대한 암묵적 가치가 생명윤리의 의사결정에서 공리주의적 결정과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성취의 암묵적 가치는 안락사에 대한 동의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r = .26, p < .05$. 또한 성취의 가치를 암묵적으로 선호하는 참가자일수록 장기이식의 활성화에 더 동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r = .38, p < .01$.

표 4. 명시적/암묵적 가치와 생명윤리 의사결정 간의 상관관계

N = 59

	M	SD	1	2	3	4	5	6	7	8	9
명시적 가치											
1. 성취	4.25	2.13									
2. 배려	4.24	2.24	-.25*								
암묵적 가치											
3. 성취	1.12	1.45	.08	.01							
4. 배려	.86	1.01	.01	-.06	.02						
생명윤리(질문에 대한 동의정도)											
5. 동물실험	4.64	1.31	-.02	.16	.08	.06					
6. 과학기술발달	4.77	1.64	-.12	.28*	.10	-.11	-.06				
7. 태아성감별	2.63	1.40	.01	-.10	.02	.12	.13	-.15			
8. 안락사	4.31	1.63	.06	-.07	.26*	.16	.57**	.08	.23		
9. 장기이식	3.92	1.52	.13	.09	.38**	.20	.44**	-.12	-.02	.28*	
10. 인간복제연구	3.05	1.47	-.05	-.03	.02	.14	.26*	-.04	.31*	.22	.17

* $p < .05$, ** $p < .01$

이 결과는 성취의 가치에 대한 암묵적 선호는 안락사 및 장기이식에 대한功利주의적 결정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취/배려 가치의 점화와 생명윤리에 대한功利주의적 의사결정

연구 3에서는 문장완성과제를 통해 점화한 성취/배려의 가치가 참가자 개인이 선호하는 가치와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성취/배려의 각 조건에서 성취의 가치를 암묵적으로 더 선호하는 집단을 성취집단으로, 배려의 가치를 성취의 가치보다 암묵적으로 더 선호하는 집단을 배려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단어완성과제에서 성취/배려의 가치에 대해

점수가 동일한 참가자는 다섯 명이 있었으며, 이들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실험상황에서 성취의 가치가 유도된 성취점화조건에서는 성취/배려집단 간에 생명윤리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전반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26) = -.06, p = .96$. 반면 배려의 가치가 실험상황에서 활성화되었을 때, 동물실험 ($t(24) = 2.31, p < .05$) 및 장기이식의 활성화 ($t(24) = 3.25, p < .01$)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배려점화조건에서는 배려의 가치를 암묵적으로 선호하는 참가자들이 성취의 가치를 암묵적으로 더 선호하는 참가자들보다 동물실험과 장기이식에 대한 동의 정도가 더 낮았다.

표 5. 성취/배려의 조건에서 참가자의 암묵적 가치선호에 따른 생명윤리 의사결정에서의 동의정도의 차이

점화조건		동물실험	과학기술 발달	태아 성감별	안락사	장기이식	인간복제 연구
성취 (n = 32)	성취	5.25 (1.25)	5.18 (1.27)	2.75 (1.29)	4.13 (1.74)	4.02 (1.31)	3.13 (1.58)
	배려	5.12 (.96)	5.00 (1.56)	2.90 (1.72)	3.90 (1.72)	4.00 (1.82)	2.80 (1.81)
배려 (n = 27)	성취	5.45 ^a (1.27)	4.27 (1.73)	2.27 (1.19)	4.82 (1.66)	5.00 ^b (1.26)	4.00 (1.14)
	배려	4.57 (1.14)	3.85 (2.03)	2.86 (1.46)	4.86 (1.34)	3.00 (1.29)	2.91 (1.13)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성취점화조건과 배려점화조건은 문장완성과제를 통해 성취 혹은 배려의 가치를 점화하였음. 각 조건 안에서 참가자의 암묵적 가치선호는 단어완성과제의 점수에 따라 성취와 연관된 단어를 배려와 연관된 단어보다 더 많이 맞힌 경우, 성취의 가치를 선호하는 참가자로, 반대의 경우에는 배려의 가치를 선호하는 참가자로 구분하였음. 성취 또는 배려와 연관된 단어를 동일한 개수로 맞힌 참가자는 총 5명이었으며, 이 참가자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독립표본 t-검정에 의하면, a, b의 값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

생명윤리에 대한 공리주의적/의무론적 의사결정

성취/배려조건에서 참가자가 선호하는 가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생명윤리주제는 과학기술발달, 태아성감별, 안락사 및 인간복제연구였다. 이 영역에서 참가자들이 공리주의적 또는 의무론적 결정을 내렸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성취/점화조건에 따라 일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다. 우선 과학기술발달에 대해서는 성취점화조건($\alpha(31) = 5.96, p < .001$)에서는 7점 척도에서 4점(보통)보다 동의정도가 유의하게 높아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려점화조건($\alpha(26) = .01, p = .98$)에서는 과학기술발달에 대해 보통(4)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안락사에 대해서는 성취점화조건($\alpha(31) = .87, p = .39$)과 배려점화조건($\alpha(26) =$

$-1.16, p = .26$)에서 모두 보통(4)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태아성감별에 관해서는 성취점화조건($\alpha(31) = -5.68, p < .001$)과 배려점화조건($\alpha(26) = -4.85, p < .001$)에서 모두 4점(보통)보다 동의정도가 유의하게 낮아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간복제연구에 관해서도 성취점화조건($\alpha(31) = -2.83, p < .01$)과 배려점화조건($\alpha(26) = -4.02, p < .001$)에서 모두 보통보다 동의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나서, 이 두 조건에서 모두 인간복제연구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구 2와 같이 과학기술발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공리주의적 결정이 우세한 데 비해, 태아성감별 및 인간복제 연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의무론적 결정이 더 우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논 의

연구 3에서는 실험상황에서 성취/배려의 가치를 활성화시켰을 때, 참가자 개인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선호하는 성취/배려의 가치가 생명윤리에 대한 의사결정과 상호작용하는지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배려의 가치에 대한 명시적 선호가 높을수록 과학기술발달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또한 성취의 가치를 암묵적으로 선호하는 참가자일수록 안락사 및 장기이식의 활성화에 동의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또한 참가자가 동물실험에 대한 동의를 더 많이 할수록 안락사, 장기이식 및 인간복제연구에 대한 동의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참가자가 동물실험에 대한 공리주의적 결정을 내렸을 경우, 안락사, 장기이식 및 인간복제연구의 주제에서도 공리주의적 입장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성취/배려의 가치가 외부상황에서 활성화된 가치와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성취조건에서는 참가자가 암묵적으로 선호하는 성취/배려의 가치가 생명윤리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배려조건에서는 동물실험과 장기이식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성취의 가치를 배려의 가치보다 암묵적으로 더 선호하는 참가자의 공리주의적 결정의 비율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배려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사회적 상황에서 공리주의/의무론 입장의 대립이 동물실험 및 장기이식의 영역에서 더 자주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 2의 결과와 같이 태아성감별 및 인간복제연구에 대해서는 연구참가자 개인이 암묵적으로 선호하는 성취/배려의 가치에 관계없

이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동물실험과 장기이식에 관한 의사결정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영향이 태아성감별과 인간복제연구에 대한 의사결정에서보다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전체 논의

본 연구에서는 실험상황에서 유도된 성취/배려의 가치에 따라 한 개인이 암묵적으로 선호하는 사회적 가치가 생명윤리에 관한 의사결정에 차별화된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배려의 가치가 활성화된 조건에서는 배려의 가치를 성취의 가치보다 암묵적으로 선호하는 개인이 동물실험과 장기이식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더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외부에서 활성화된 사회적 가치와 한 개인이 암묵적으로 선호하는 사회적 가치가 생명윤리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연구 1에서는 대학생의 가치선호를 분석하고, Schwartz(1992)의 사회적 가치의 원형모형이론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성취/배려의 가치가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성취의 가치를 선호하는 개인일수록 배려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결과는 사회적 가치의 모형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원형모형에서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진 가치는 서로 부적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연구 2에서는 실험상황에서 문장완성과제를 통해 성취/배려의 가치를 암묵적으로 활성화시켰을 때, 생명윤리에 대한 의사결

정이 달라지는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성취/배려의 가치점화에 따라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생명윤리의 세부영역에 따라 공리주의적 결정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해보았다. 동물실험, 안락사, 과학기술발달 및 장기이식에 관해 동의정도가 높아서, 공리주의 결정이 우세한 반면, 태아성감별 및 인간복제에 대해 반대정도가 높아서, 의무론적 결정이 더 선호되었다. 이 결과는 한 개인에게 공리주의 또는 의무론 결정의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난다기보다는 생명윤리의 세부영역에 따라 공리주의/의무론의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준다. 셋째, 연구 3에서는 한 개인이 암묵적으로 선호하는 가치가 실험상황에서 유도된 성취/배려의 가치에 따라 생명윤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배려의 가치점화조건에서 성취의 가치보다 배려의 가치를 암묵적으로 더 선호하는 개인일수록 동물실험과 장기이식의 활성화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성취의 가치점화조건에서는 생명윤리의 의사결정에서 개인이 암묵적으로 선호하는 가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공리주의 의사결정과 의무론적 의사결정의 갈등은 특히 상황적으로 배려의 가치가 중요시될 때 나타날 것이며, 특히 동물실험이나 부족한 신체장기의 공급활성화와 같은 영역에서 더 많이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넷째, 연구 2와 연구 3에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태아성감별과 인간복제연구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국외 연구(Engelen & Vandeveld, 2004; Heyd, 2003)에 의하면, 태아성감별과 인간복제연구에 대한 공리주의적/의무론적 입장대립으로 논의가 진행되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상황이나 개인의 가치에 관계

없이 이 주제에 관해 의무론적 결정이 아직까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가 전문가집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설선헤, 이춘길, 2008),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보공유나 토론이 실시되고 있지 않아, 아직까지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후속 연구에서는 태아성감별과 인간복제연구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인적 및 상황적 변인(예: 배경지식수준, 문화차이, 심리적 거리)을 더 세분화하여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문장완성과제를 통해 성취/배려 가치의 활성화를 유도했는데, 연구 2와 연구 3에서 가치점화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부 상황에서의 가치 점화는 참가자 개인이 선호하는 암묵적 가치의 관계를 통해서만 생명윤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Bardi와 Schwartz(2003)는 가치와 행동의 관계가 자극추구와 전통의 영역에서는 강하게 나타나는데 비해, 성취, 배려 또는 안전의 영역에서는 약하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성취/배려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성취/배려의 가치에서는 일반적으로 행동과의 관계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지 또는 문장완성과제의 문제 때문인지는 후속연구에서 다양한 가치의 점화를 정교한 방법으로 시도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암묵적 가치선호를 단어연상과제를 통해 측정하였다. 암묵적 가치선호와 외국어 숙련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한국 대학생의 가치선호를 영어

단어조각을 통해 측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암묵적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참가자의 암묵적 가치선호를 정교하게 측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김기홍, 2003; 목광수, 2010; 박미화, 2000)를 토대로 생명윤리에 관한 질문에 참가자가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에 따라 공리주의 또는 의무론의 결정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에는 생명윤리의 주제에 관한 의사결정의 결과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 공리주의 입장은 결과를 부각시키고, 의무론적 윤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강조함을 생각할 때, 본 연구에서 참가자의 결정과정을 분석함이 없이 공리주의/의무론적 결정으로 구분한 것에는 연구결과의 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가치의 활성화와 생명윤리 의사결정과의 상관관계를 횡단연구를 통해 보여주었다. 횡단연구는 본 연구에서처럼 참가자집단이 다양하지 않을 때, 단지 현상의 기술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좋은 연구는 현상의 단순한 기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설명과 예측이 가능해야 함을 생각할 때(김교헌, 2002), 본 연구의 현실적 함의는 매우 제한적이다. 개인과 사회의 가치는 변화하고, 변화한 가치는 생명윤리의 의사결정에 지속적으로 다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가치의 변화와 윤리적 의사결정의 관계를 탐색하여 윤리적 의사결정의 상반된 입장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첨단의료기술의 혜택으로 많은 난치병의 치료가 가능해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물실험, 장기매매, 유전자 조작과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면서, 생명윤리의 추상적인 원칙만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규명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아직까지 생명윤리에 관한 사회적 의견이 수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생명복제 기술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정책적으로 맡게 됨으로써 전 세계적 생명윤리 논란의 중심부에 서 있다(구인회, 2005). 향후 한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윤리에 대한 다양한 갈등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생명윤리의 주제를 전문가중심의 추상적 논의에서 벗어나, 일반인을 위한 시급한 생명의 문제로서 심리학, 철학, 윤리학 및 뇌과학의 연계속에서 정교하게 탐색하는 것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 견영기, 조성명, 황현국, 이강욱 (2010). 일개 의과대학에서 완벽주의 성향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학교육*, 22, 205-214.
- 구인회 (2005). 생명윤리, 무엇이 쟁점인가? 아카넷.
- 구인회 (2008). 우리나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윤리적 검토. *법철학연구*, 11, 197-222.
- 구인회 (2000). 장기이식에 대한 윤리적 고찰. *신학과 철학*, 2, 1-21.
- 김교헌 (2002). 생명공학에 대한 한국인들의 표상: 대학생들과 일반 성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 165-187.
- 김기홍 (2003).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공리주의적 인간관 비판: 낙태 및 안락사 문제를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37, 19-37.

- 목광수 (2010). 윤리적 동물 실험의 철학적 옹호 가능성 검토. *철학연구*, 90, 33-61.
- 문성학, 정창록 (2010). 인간배아복제연구의 도덕성 논쟁. *철학논총*, 62, 85-110.
- 박미화 (2000).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과 변화양상.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 199-217.
- 설선혜, 이춘길 (2008). 신경윤리학: 뇌과학의 윤리적, 철학적, 법적, 사회적 문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 1-41.
- 성미혜 (1999). 임상간호사들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9, 551-553.
- 이재성 (2011). 의료윤리적 관점에서 생명과 죽게 내버려 둠의 문제. *철학연구*, 120, 261-279.
- 이현지, 방희정 (2012). 노인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8, 191-213.
- 추정완 (2015). 장애와 의료기술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 성찰. *윤리연구*, 105, 111-135.
- 한성숙, 안성희 (1995). 간호윤리교육: 도덕적 사고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간호행정학회지*, 1, 5-21.
- 한성숙, 김중호, 홍현자 (2003).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이식 실태조사. *대한이식학회지*, 17, 203-219.
- Aquino, K., & Reed, A. (2002). The self-importance of moral ident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1423-1440.
- Bauer, M. K., Wilkie, J. E. B., Kim, J. K., & Bodenhausen, G. V. (2012). Cuing consumerism: Situational materialism undermines personal and social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23, 517-523.
- Bardi, A., & Schwartz, S. H. (2003). Values and behavior: Strength and structure of rel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1207-1221.
- Bardi, A., Calogero, R. M., & Mullen, B. (2008). A new archival approach to the study of values and value-behavior relations: Validation of the value lexic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 483-497.
- Conway, P., & Gawronski, B. (2013). Deontological and utilitarian inclination in moral decision making: A process dissociation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 216-235.
- Engelen, B., & Vandevelde, A. (2004). Commentary: A defense of common sense. *Ethical Perspectives*, 11, 84.
- Enns, M. W., Cox, B. J., Sareen, J., & Freeman, P. (2001). Adaptive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in medical student: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Medical Education*, 35, 1034-1042.
- Feinberg, M., & Willer, R. (2013). The moral roots of environmental attitudes. *Psychological Science*, 24, 56-62.
- Fitzgerald, C. (2014). A neglected aspect of conscience: Awareness of implicit attitudes. *Bioethics*, 28, 24-32.
- Fitzsimons, G. M., & Shah, J. Y. (2008). How goal instrumentality shapes relationship eval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 319-337.
- Greene, J. D. (2016). Our driverless dilemma: When should your car be willing to kill you? *Science*, 352, 1514-1515.
- Greene, J. D., Sommerville, R. B., Nystrom, L. E.,

- Darley, J. M., & Cohen, J. D. (2001). An fMRI investigation of emotional engagement in moral judgment. *Science, 293*, 2105-2108.
- Greene, J. D., Morelli, S. A., Lowenberg, K., Nystrom, L. E., & Cohen, J. D. (2008). Cognitive load selectively interferes with utilitarian moral judgment. *Cognition, 107*, 1144-1154.
- Greene, J. D. (2009). Dual-Process morality and the personal/impersonal distinction: A reply to McGuire, Langdon, Coltheart, and Mackenzi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 581-584.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464-1480.
- Greenwald, A. C., Nosek, B. A., & Banaji, M. R.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 An improved scoring algorith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197-216.
- Grouzet, F. M. E., Kasser, T., Ahuvia, A., Dols, J. M. F., Kim, Y., & Lau, S. (2005). The Structure of goal contents across 15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800-816.
- Haidt, J. (2001).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108*, 814-834.
- Haidt, J. (2007). The new synthesis in moral psychology. *Science, 316*, 998-1002.
- Hart, W., & Albarracin, D. (2009). The effects of chronic motivation and achievement primes on the activation of achievement and fun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1129-1141.
- Heyd, D. (2003). Male or Female, We will create them: The ethics of sex selection for non-medical reasons. *Ethical Perspectives, 10*, 204-214.
- Hofmann, W., Wisneski, D. C., Brandt, M. J., & Skitka, L. J. (2014). Morality in everyday life. *Science, 345*, 1340-1343.
- Maio, G. R., Pakizeh, A., Cheung, W.-Y., & Rees, K. J. (2009). Changing, Priming, Acting on Values: Effects via Motivational Relations in a Circular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699-715.
- Ma-Kellams, C., & Blascovich, J. (2013). Does science make you moral? The effect of priming science on moral judgment and behavior. *PLOS, 8*, 1-4.
- Morales, N. M. (2009). Psychological and ideological aspects of human cloning: A transition to a transhumanist psychology. *Journal of Evolution & Technology, 20*, 19-42.
- Schneider, W., Eschmann, A., & Zuccolotto, A. (2002). E-Prime reference guide. Pittsburgh, PA: Psychology Software Tools.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1-65.
- Schwartz, S. H. (1996). Value priorities and behavior: Applying the theory of integrated value systems (Vol. 8). Mahwah, NJ: Erlbaum.

- Vargas, P. T., Sekaquaptewa, D., & von Hippel, W. (2007). Armed only with paper and pencil: "Low tech" measures of implicit attitudes. In B. Wittenbrink & N. Schwarz (Eds.), *Implicit measures of attitudes* (pp. 103-124). New York: Guilford Press.
- Waldmann, M. R., & Dieterich, J. H. (2007). Throwing a bomb on a person versus throwing a person on a bomb: Intervention Myopia in moral intuitions. *Psychological Science*, *18*, 247-253.

논문 투고일 : 2016. 10. 31

1차 심사일 : 2016. 11. 08

게재 확정일 : 2016. 12. 18

Social values and decision making on bioethical issues

Hong Im Shin

Yeungnam University

This article aimed to test whether specific social values (i.e., achievement vs. benevolence) could cause changes in decision making on bio-ethical issues. Study 1 investigated value preferences among young Korean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Schwartz's (1992) model of social valu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preference for achievement value was correlated negatively with the preference for benevolence value. In Study 2, following a sentence completion task which was conducted to trigger specific values, the participants had to indicate their ethical decisions regarding animal experiment, euthanasia, organ transplantation, biotechnology, sex selection and human cloning. Irrespective of the value priming (achievement vs. benevolence), there were more utilitarian decisions about animal experiment, euthanasia and organ transplantation. In contrary, there were more deontological decisions about sex selection and human cloning. Study 3 introduced a word completion task to assess implicit value preferenc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with implicit preferences for the benevolence value in the condition of benevolence value priming were more frequently against animal experiments and organ transplantation than those with implicit value preferences for the achievement value. Social values are discussed for understanding one's bioethical decision making.

Key words : value, priming, bioethics, implicit attitude, utilitarian decisions

부록 1. 단어완성 과제

단어조각	목표단어	중립단어	단어조각	목표단어	중립단어
equa _ _ _ _	equality	equation	sa _ _ ty	safety	sanity
de _ end	defend	depend	_ _ light	delight	enlight
ambi _ _ ous	ambitious	ambiguous	_ ower	power	lower
pro _ ect	protect	project	_ inner	winner	dinner
_ _ _ _ ury	luxury	-	_ _ _ _ _ dom	freedom	kingdom
str _ ng _ _	strength	stranger	com _ _ s _ sion	compassion	commission
_ _ _ _ cess	success	process	c _ _ st _ _	custom	costly
auto _ _ _ _ _	autonomy	automate	con _ _ _ _ _ _ ation	consideration	concentration
_ aring	caring	daring	a _ _ _ _ _ _ _ ement	achievement	arrangement
_ _ _ spect	respect	inspect	_ ind _ _ ess	kindness	mindless
uni _ _	unite	units	_ _ _ _ dition	tradition	condition
_ _ _ _ ense	defense	expense	lib _ _ _ _ y	liberty	library